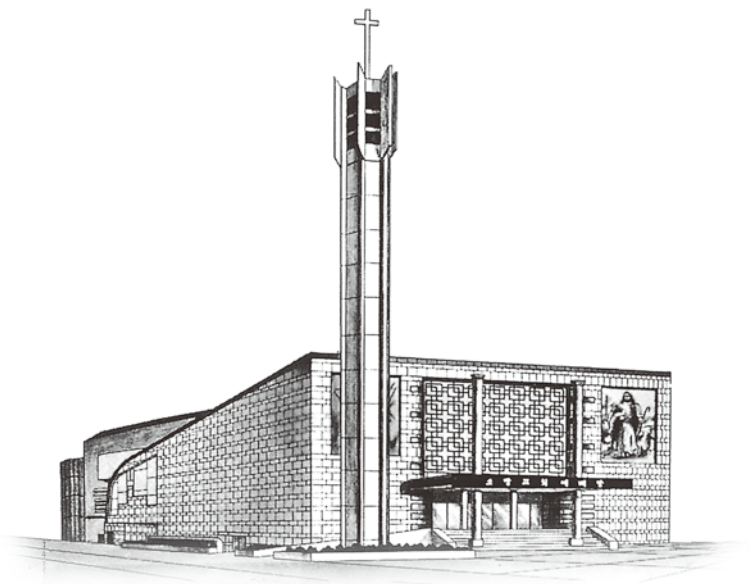


소망교회 | 성탄예배

2020. 12. 25 | 1부 오전 5:30 | 2부 7:30 | 3부 9:30 | 4부 11:30



담임목사 김경진

교독문 120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눅1:68-75)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모든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눅 1:78-79)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

예배의부름		인 도 자
송 영		오 르 간
찬 송	 125	다 같 이
주님을 영접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기도		다 같 이

하나님 아버지,

전례 없는 성탄절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날인데도 거리는 한산하고 예배당은 비어 있습니다. 감염병이 시작된 지 한 해가 다 되어가지만, 확진자 수는 날로 증가하고, 치료제는 소식이 없으며 아직도 종식의 끝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 날인데도 마냥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염병과 치열하게 싸우는 환우들을, 병마에 저항하며 해법을 찾는 의료진을, 생계가 막막해진 이웃들을, 가족과 떨어져 독거하는 부모님을, 미래가 불안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세상의 빛이요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건디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기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외롭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통 받는 자를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일을 소망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오늘, 기쁜 성탄의 아침

우리로 아기 예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는 믿음과, 앞을 보게 하는 소망과, 섬기게 하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찾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송 영		오 르 간
성 시 교 독	 120번(성탄절2)	다 같 이
찬 송	 122	다 같 이
기 도	 한정운 김영규 정제현 나영덕목사	
성 경 봉 독	 눅 2:8~14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말 씬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김경진목사
기 도		설 교 자
찬 송	 126	다 같 이
헌 금	 111(1절)	다 같 이
찬 송	 115	다 같 이
축 도		김경진목사
송 영		오 르 간
축 하		다 같 이